천주교 서울대교구 잠실성당 (예수성심성당)

05559 송파구 올림픽로12길 9(잠실동)
본당사무실 : 415-5321~2 (FAX)419-6721
홈페이지 : www.잠실성당.org

† 주임신부 : 정순오 미카엘
† 부주임신부 : 백중서 요셉
† 보좌신부 : 김용찬 사도요한
† 전교수녀 : 백 유쿤다, 이 에지디오
† 연 령 회 : 010- 5130- 5608

미사 및 전례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 저녁주일미사	오후 4:00(초등부) 6:00	평 일 미 사	오전 6:00 (월~토) 오전 10:00 (화~금)
	주 일	6:00, 7:30, 9:00(중고등부) 11:00(교중), 18:00(청년)	유 아 세 례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5시
			혼 인 예 식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2시

[제14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을 위한 기도 봉헌]

새 교구장님을 위한 기도

✞ 자비로우신!
우리 서울대교구에 새 교구장으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원과 평화의 사도로 파견된
주님의 일꾼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에게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착한 목자 되게 하소서.
또한 하느님을 향해 함께 걷는 여정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저마다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이끌어 주소서.
○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과 성 요셉님,
◉ 저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성인성녀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염수정 추기경 인준)

[교구장님 영명축일을 위한 영적예물]

- **서울대교구 교구장이신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께서 오는 11월 30일 영명축일을** 맞이하여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적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 **영적예물은** 배부된 용지를 작성하셔서 **성전 입구 게시판 아래 마련된 함에 11월 21일(주일)** 까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수험생을 위한 미사]

- **일 시 :** 11월 17일(수) **오후 7시**
- 미사 중에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 **수험생은** 앞자리에 앉고, 수험생 **고해성사는 오후 6시 30분부터** 있습니다.
- 미사지향을 원하시는 분은 **11월16일까지 본당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부모를 위한 피정]

- **일 시 : 11월 18일(목)** 08:40~16:00
- **장 소 : 성 전**
- **회 비 :** 10,000원**(사무실에서 접수)**

- **오늘은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기부금 영수증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유효기간 5년)**
  - 가족 대리신청 :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 계서류지참
  - **책정자, 납입자 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무실신청**

[단체장 명단 제출]

- 각 단체들은 **2022년에** 봉사할 **단체장 및 단체원 명단**(이름,세례명,연락처,영명축일)을 11월 28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업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오페라]

- **일 자 : 11월 20일(토)** 오후 2시, 저녁 7시
  11월 21일(주일) 오후 5시
- **장 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 **신자특전 : 2인 이상 단체 50% 할인**
- **티켓가격 :** R석 165,000 S석 121,000
  A석 88,000 B석 55,000
- **티켓담당자 : 박정민 010.9914.6253**
  (https://cbck.or.kr/Notice 20210953 참조)

우리들의 정성(10/26~ 10/31)

· 교 무 금 ·····23,400,000원
· 주일헌금 ·····3,940,000원
· 건축헌금 ·····2,275,000원
· 감사헌금 ·····1,350,000원

· 감사헌금

김광환	1,000,000원	이현규	100,000원
정현아	200,000원	정지희	50,000원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마르코 12,38-44)